

벤처 전망대에서 바라본 2006 벤처캐피털과 코스닥시장



투자재원 확보로 희망의 빛 보이는 벤처캐피털

2005년 돌아보기 : 창업지원법이 만들어진 이후 투자가 가정 적게 이루어졌던 2004년, 일 년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던 벤처캐피털은 벤처활성화 원년을 모토로 시작된 2005년에 대해서도 그리 밝은 전망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5년이 시작되자 얘기가 달라졌다. 초반 코스닥 지수가 500선을 돌파하는 등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면서 오랜 침체에 빠져 있던 벤처캐피털업계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다. 벤처투자 액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투자기업들의 기업공개(IPO)에도 적극 나서는 등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된 벤처캐피털의 투자규모도 9830억원으로 전년의 5639억원에 비해 74.3% 증가되었다.

2006년 내다보기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43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84억원보다 11.1% 상승했다고 한다. 이는 창투사들이 회수한 자금이 늘어나 신규조합 결성과 벤처 신규투자자로 원활히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승세를 따라 창투사 등 벤처캐피털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벤처기업 투자에 나설 전망이다. 벤처캐피털은 올해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를 비롯해 국민연금, 한국IT펀드(KIF)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신규투자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 등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을 통해 투자원금 이상의 수익을 거두며 하반기부터 다양한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했다.

벤처투자는 '벤처 활성화 대책' 등의 제도적인 개선으로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고,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투자가 회복됨으로써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더욱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2006 벤처시장에 벌써부터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이다.

분야별 들여다보기 : 벤처캐피털의 주요 투자 분야는 여전히 정보통신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스닥기업의 바이오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사업진출이 붓물을 이루면



벤처기업에게 적합한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고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하는 '벤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2005년 벤처를 돌아보면 코스닥시장의 활황, 벤처캐피탈의 신규 투자재원 확보 및 기술보증기금의 정상화 등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을 느꼈기에 더욱 기대되는 새해, 2006년 벤처를 미리 전망한다.

서 그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듯하다. 올해 풀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2006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바이오의 바통을 이어받아 M&A와 지분투자, 상장 등이 줄을 이으면서 투자 열기를 보인 엔터테인먼트도 지속적인 투자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특히 지난 10월 창업지원법 등이 바뀌면서 경영참여 투자를 준비하는 창투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 경영진을 사업 일선에 배치하고 경영 일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기업을 육성하는 무한투자는, 정보통신 외에 바이오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기업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창투조합을 통한 경영참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는 코스닥시장

2005년 돌아보기 :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국내 경제에 생기가 돌고 있다. 주가가 날로 치솟는 중이며 2분기를 바닥으로 했던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을 딛고 일어서고 있다. 실제 코스닥기업 706개사(12월 결산)가 올해 3분기에 올린 매출규모가 총 13조 8천억원으로 2분기보다 0.84% 가량 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7378억원, 3932억원으로 2분기보다 10.7%, 11.2% 가량 급증했고, 경상이익은 22.7%나 늘었다. 또한 인터파크, KTH, 한글과컴퓨터 등 총 72개사가 2분기 적자에서 3분기에 흑자로 전환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2006년 내다보기 : 12월 1일 코스닥 지수는 727.43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일보다 2.11% 상승했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 380.33포인트에 비해 무려 91.3%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21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초호황을 누렸다. 이러한 변화에는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벤처 활성화 정책'이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승세가 200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코스닥 지수가 700대에 진입하면서 기술적 분석상 지난 2000년 이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와 같이 70% 이상의 급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워도 코스피 예상 상승률을 웃도는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코스피시장보다 30~50% 이상 더 성장(outperform)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2006년에는 탄탄한 수급과 경제회복 속에 코스닥 지수가 800선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장외기업들도 있으므로 코스닥시장의 상승세가 벤처업체 전반으로 전해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분야별 들여다보기 : 올해 상반기에는 우회상장 등 인수합병을 통한 코스닥시장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여기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복제 성공으로 바이오가 상승엔진을 달았다. 또한 한류의 확산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콘텐츠 확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엔터테인먼트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표 테마로 떠올랐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지난 5월 20일 올해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해 현재 24만원대로 뛰어오른 NHN 등 실적이 좋은 업체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2006년에도 이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주가 주도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터넷을 필두로 한 IT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투자가 진행되는 반도체장비나 통신장비업체도 선도주에 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내수회복과 함께 홈쇼핑, 부품주들도 강세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